

토끼가 얼른 달려들어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.

토끼: (웃으면서) 이제야 알았습니다. 설명하시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  
다. 호랑이님이 어떻게 이 궤짝 속에 들어갔는지 잘 알았습니다.  
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가 보겠습니다.

- 5 나그네: (토끼를 쫓아가며) 토끼님, 대단히 고맙습니다. 이 은혜를 어떻  
게 갚아야 할지…….

호랑이는 궤짝 속에 쭈그려 울부짖고, 사냥꾼들이 돌아와 궤짝을  
메고 고개를 넘어간다. 즐거운 음악이 흐르며 막이 내린다.

